여러분은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왕의 칼을 쓱 뽑아서는 그냥 친 겁니다. 그대로 다 무찌르고 다 쫓아 버린 겁니다. 그 여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도 말이 아니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니만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로 맞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목욕을 시키고 해서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쁜 여자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던 상대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두 친구,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었던 그 친구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립이 졌습니다. 자기네들도 모르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은 또 악하게 그렇게 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은 선하게 남을 구제하고 그러는데 나라가 위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의 악한 나라의 왕비는 자꾸 임금을 악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쪽 왕비는 선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악한 그쪽에서 백지 한 장을 활에다 매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끌러 보니깐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신하에게 다 보여도 이 글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느 때 쳐들어온다는 건지 안 쳐들어온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몰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비한테 걱정스러운 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지를 제게 좀 보여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했습니다. 왕비는 아주 겸손하고 뭐든지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알지만 그러한 내색도 없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 내비치지도 않게끔 자꾸 다짐을 하고요. 사람이 값싼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하더러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부인에게 보였죠. 그 임금은 부인의 말을 100%로 믿고 갑니다, 얼마나 착한지. 이 부인이 참, 보살이죠. 이거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관세음보살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더니 "아무개야, 물 한 그릇 떠 오너라." 그러거든요. 물 한 그릇을 넓은 데다 떠 오니까 이 물에다가 이 종이를 넣고 "아주 정성스런 대왕의 피 한 방울이 여기 들어가야만 이 글씨는 보입니다."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피를 정말 넣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성입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이것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의 임금이라면 생명을 걸고 임금 노릇을 해야 돼요. 몸을 사리면 임금 노릇을 못 하죠.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손수 오른손 손날 부근을 잘랐습니다. 조금 해 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것이 퍼지면서 그 백지, 물속에 넣은 백지 속에서 글씨가 나오되 "이 글자를 못 읽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쳐서 삼키겠노라." 하고 써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백지에다가 아무 소리 없이 그 부인이 '무(無)' 자 하나 썼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백지예요. "무(無)"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글씨를 써서 보내도 문제인데 글씨를 쓰지 않았어도 글씨를 탁탁 알아내고 이걸 답을 했으니, 거긴 의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칠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여우 아니라 불여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도중에, 그 악한 도술이, 그러니깐 여긴 도력이고 그쪽엔 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화에 많이 나오겠지마는 예전엔 도술은 육신 무예, 술(術)! 또 마음을 깨달아서 도력으로써 하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하여금 머리를 굴려서 도력이라고 합니다. 정신 무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도력으로써 그렇게 100% 무궁무진한 사람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술로써 임금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인 게 지금으로 치면 안락사, 즉 도술로다가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삼중천이나 저런 데 가서 이름이 다 통하는데, 환상천이다 하는 거는, 아직 죽을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이름이 박히지 않고 그냥 거기 몰켜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신하들더러 이 앞뒤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해 놓고 자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몸을 움죽거리지 않고 죽은 거같이 보일 테니까 모두가 장사를 지내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장사 지내지 말아 다오." 그러고선 혼백을, 남편의 혼백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백을 찾으러 들어가서, 간단히 얘기하죠.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런 데는 무명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천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삼중천을 거쳐서 보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와 있질 않아. 그래서 물었더니 거기에서 일러 주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즉 환상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천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한 끝에 혼백을 찾았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사방천에서도 도와주고 참도리천에서 도솔천에서 한마음이 돼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혼백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아하, 내가 이렇게 갔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환상천도 무(無)고 이 무명천도 무다' 이거야. '모두가 무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이 혼백을 가져오는 것이고, 조끄마한 좁쌀 알갱이 하나만 한 그 원동력이 이 세상을 싸고도 남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 생도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나온 것도 알았고, 후일에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모든 걸 거기에서 비춰 봐서 다 알게 되고 그때에 눈도 뜨고,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말하듯이 천안통으로 모든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혼백을 가져와서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래 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참, 어떻게 행을 했을까?

그분은 몸으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즉 말하자면 왜, 애들 만화영화 있죠? 만화영화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현실로, 무전통신기와 광선, 레이저 광선이 있는 거를 보세요. 그게 그걸로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신하들은 다 놔주고 나쁜 사람들은 다 쳤답니다, 그 부인이 말입니다. 앉아서 그렇게 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도 역시 뒷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나서서도 봐주었다는 얘깁니다. 나중엔 온 데 간 데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절로 들어가서 고승이 됐다 합니다.

그때에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고 했지마는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공중에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육군이나 또는 공군이나 해군이나 군부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린 삽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마는 다른 어떤 혹성에서도 그럴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리를 알아야 앉아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죽겠다고 하니깐 여기서 딴 데 있는 사람을 안락사를 시켜서 그 집안이 편안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죠. 수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할 때에 그건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명만 쳤을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즉 혼백을 또 다시 내보내서 수련을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여도 살리는 거, 살려도 살리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인연이 없다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인연이 있겠습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고, 건질 수 없다고 한 것이, 마음에서 떠나면 인연이 없는 겁니다. 구제가 되지 않고요.

또 지금 현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우리 반쪽을 사이좋게 소련과 더불어 나누어 가진 겁니다. '나는 반을 가질 테니 너도 반 가져라.' 무슨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탕 반 조각 쪼개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한다면 대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국내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는 참 처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또 깨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요령만 알면 된다. 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크면 큰 대로 쓸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쓸 거면 육지에서 쓰고, 공중에서 쓸 거면 공중에서 쓰고, 물에서 쓸 거면 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앉아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모두가 둘이 아닌 그 뜻을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그 잠재의식 테이프에 다 감긴 그것이 착 나오는 대로, 저 스크린 돌아가듯이 나오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처참하게, 나와 더불어 같이 걸어왔나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누구를 보고 그냥 악하게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보고 때릴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지렁이같이 그냥 순해 터진 양처럼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요만한 거 하나, 싸래기 반토막 하나 에누리가 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 가지 맛이 나도록 말입니다. 과일이 만 가지 맛이 난다면 만 가지 향내도 날 것이고 또 무르익는다면 여러분이 전부 말없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제 나무에서 제 과실이 열리게 해서 무르익게 해서, 바로 자기가 맛을 본다면 그 과실 하나에서 맛이 만 가지가 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산에 가면 산 맛이 나고 들에 가면 들 맛이 나고 꽃을 보면 꽃 맛이 나고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꽃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벌레하고도 얘기하고. 죽은 사람들 전체, 전부와 얘기할 수 있어야 회전이 되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앉아서 뭘 어떻게 하든지 하죠.

그래서 모습 없는 모습들이, 수천수만이 이 허공에 수없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천도재도 생긴 것이죠.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도 천도재를 해서, 이를테면 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의 예수재를 지내드리고 또 천도재도 지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공부하다 조금만 뭐해도 어떤 분들은 잘못됐다고 관음시식을 지내드리고 이러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수억겁 전 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왜 멀리 두십니까? 내 주인공 하면 그 속에 석존이나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것을, 일체 조상들이 다 계신 것을 구태여, 왜 멀리 바깥으로 내놓고선 찾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잘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기복을 떠나시면서 자성, 자신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3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까.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